



3면

한국형 전투기 KF-21, 날아오르다

전주매일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음 6월 22일) 제30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코로나19 재유행 함께 선제 대응하자”

국립대병원 최초 준공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서 김관영 도지사, 감염병 대응 상황 직접 점검 나서 도, 재확산 대비 치료병상 확충 등 다각적 대응책 마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환자 치료를 위한 최일선 의료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의 유기적 협조를 당부하는 등 감염병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19일 전주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준공한 감염관리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전북도는 최근 코로나19 BA.5 변이 확산으로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6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에 따라,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치료를 위한 치료병상 확충, 호남권 병상공동대응체계 구축,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확대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 대응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가 이날 찾은 전북대학교병원 감염관리센터는 지난 5월 30일 개원한 뒤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북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써 최대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전북대병원도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중증치료 59병상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확진자 중 긴급 분만 및 수술이 요구되는 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 지사는 유희철 병원장을 만나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 음압병실 등 방역 현장을 돌아보며 애로사항을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

민들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듯 다시 한번 힘을 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이번 위기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감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 등을 위해 도정은 도내 의료계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과학방역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전북대학교병원은 도민의 자부심이라며 도민들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희철 원장은 “감염관리센터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인 전북대병원으로 감염병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기존 환자의 진료권을 확보해 지역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해 의료현장을 방문해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라북도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치료에서 도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도내 의료병상 가동률은 19일 현재 28%로 안정적이며, 당분간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상 기자·김경수 기자



19일 전북대학교병원 감염관리센터를 찾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전방위 총력전

조봉업 행정부지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 찾아 현안 지원 요청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는 대통령·총리·각 부처 장관·지역 국회의원·국민의힘 지도부 등 예산확보를 위한 현장행정으로 정치적 야합에 상관없이 전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19일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각 실국·기재부를 방문해 주요 쟁점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번 주부터 환경부, 문체부, 과기부 등 주요 부처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2차 심의가 본격 시작되고, 경제위기 극복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해 부처 내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이 이뤄지는 등 예산심사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부처 동향 파악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기재부에서 김완섭 예산실장,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도정 주요 분야별 핵심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심



사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김제 용지·익산 왕궁 특별관리 지역 현업추진 매입 사업 등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농생명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농축산업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사업’ 등의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역사·문화 자원의 콘텐츠 산업화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촉진을 위한 ‘한국문화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국립 나라꽃 무궁화 연구소 설립’, ‘국립 석재사업진흥센터 설립’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문상 재정관리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전북의 여타대상 대규모사업의 신속한 여타분과와 내년도 착수를 위한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인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과 그린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군산항 제2준설도 부기장 건설’ 등 여타가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이 그 내용이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정부예산안에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들이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20일에는 정부부지사가 국회를 찾아 지역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각 상임위 및 지역구별 쟁점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부안관요 청자,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정

국내외 홍보·판로 개척

조달청이 주최하고 정부조달문화상품 협회가 주관하는 제2차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정심사에 부안관요의 청자상품이 선정돼 나라장터와 조달몰자 홍보 카달로그에 등재되어 국내외 홍보는 물론 판로개척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정부조달문화상품의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실물심사 3차 현장심사로 이어지며 정부조달문화상품 품평회가 조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우수한 문화상품을 조달몰자로 선정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출품된 상품은 부안청자박물관 ‘부안관요’ 김문식 도예기를 비롯한 사기장들이 제작한 청자한


옥을 모티브로한 수재반침을 비롯하여 청자여의두문반상기, 청자국화문잔, 청자상감잔, 청자미니어처, 총종의 부안관요의 대표적인 청자상품을 출품했다.


부안군은 그동안 제한적인 판로시장과 낙후된 개인요장의 생산시설 등을 보완해 부안청자가 부안지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으며, 실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관이나 앞으로 서울 인사동, 인천공항 등 외부에 많은 홍보처를 통해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3355 무주관광 100선 여행추천

오늘이 아름다운 무주

[남대천 반딧불이 조형물]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